

# 남매가 노부 살해 '어비이날 비극' 시신 훼손 유기 정황 드러나 '충격'

### 항공권 등 해외 도피 준비도 복수심·재산 문제 원인 추정

어비이날 40대 남매가 혼자 사는 노부(老父)를 잔혹한 수법으로 계획살해(광주일보 5월10일자 6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토막내려한 정황마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매는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친아버지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매가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표출하고, 최근 아버지와 아들이 아파트 소유권 문제로 다투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버지께 대한 복수심과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비이날 친부 잔혹 살인=광주북부경찰은 10일 아버지인 문모(78)씨를 살해한 혐의(준속살해)로 문씨의 딸(47)과 아들(43)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딸과 아들은 어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8~9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문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5분께 대형 고무대야 속에서 이불 10체에 덮여 숨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문씨는 폭행을 당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남매는 지난 6일과 7일 새벽에 아버지의 집을 찾았지만 문씨가 여자친구(75) 집에 머물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지난 8일에는 새벽 2시29분께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8시55분께 문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매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청태이프 등을 구입했고, 현장에서는 남매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든기 3점 등 흉기 10여점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매가 아파트 계단에 놓여 있던 대형 고무대야를 범행에 이용하고 사전에 세제와 여러 장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100ℓ), 다수의 흉기를 준비한 점,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범행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매가 항공편 문의 등 해외 도피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아버지를 향한 남매의 분노="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문씨의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여부와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다. 문씨 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라며 "1990년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모셔와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문씨의 딸은 지난 2010~2011년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문제를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4차례 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어머니는 지난 2011년 9월께 세상을 떠났고, 이후 장례도 아버지와 별도로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사촌동생은 "지난 4월에는 형님(문씨가)이 '아들이 찾아와 질문서를 내놓



어비이날 친아버지를 살해한 남매가 모자가 달린 점퍼를 뒤집어쓴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으라고 행패를 부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문씨의 여자친구는 "4년 전부터 문씨와 만나왔는데 자녀들이 저를 만나고 있는 자제를 싫어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과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미혼으로 함께 사는 남매=남매는 모두 미혼으로 문씨의 아들은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실패한 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문씨의 딸은 지난 2011년 9월까지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최근에는 무직 상태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남매가 피해자와 20년간 왕래하지 않고 지나다가 최근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찾아와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왕래 없이 지내면서 가끔씩만 찾아갈 정도로 아버지와 자식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 문씨도 자녀와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부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에서 지난해 2월 내려온 '강력범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토대로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이 지침에는 토막 살인이나 유괴 살인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본인이 신상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결정은 경찰이 한다"며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얼굴·신상 공개하겠다" 남매의 돌발행동

### 안산 사건 논란 속 경찰 "비공개"

"시민으로서 담당하기 때문에 얼굴과 신상, 모든 신상을 공개하겠다."

어비이날 친아버지 문모(78)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문씨의 딸(47)과 아들(43)은 10일 경찰조사에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했다.

실제 이들 남매의 얼굴은 일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지만 광주북부경찰

은 "내부적으로 피의자들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했다.

일각에서는 북부경찰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등에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의장은 "황당해서 '뭐 하는 것이냐. 성추행으로 문제 삼겠다'고 항의했으나, A씨는 되래 '할 테면 해보라'고 말하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성적 수치심과 주민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여성 이기에 앞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쉬쉬하기 보다는 해당 인터넷 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대 총장 선출방식 이달말 결정될 듯

### 지병문 총장 간담회서 밝혀

전남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장 선출과 관련, "고민이 많다. 학교 역사에 현재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을 내세워 '총장 간선제 선출 방식'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과 대학 자

율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대가 지난 1988년 전국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실시한 상징성, 직선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총장 부재 사태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선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도 90% 이상 찬성이면 모를까 50.5%가 직선제를 찬성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전

남대 정상업 총학생회장은 지난 9일부터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전남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적·규정 변경안을 대학 본부가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남대 안팎에서는 12월 지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늦어도 10월에 총장 선거를 치르려면 이달 중 선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산구의장 "성추행 당했다"

### 인터넷 언론인 상대 고소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순(여) 의장이 주민행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광주지역 인터넷 언론인 A(5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접수했다.

이 의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열린 통장 단합대회에서 주민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나도 연락해도 되느냐'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황당해서 '뭐 하는 것이냐. 성추행으로 문제 삼겠다'고 항의했으나, A씨는 되래 '할 테면 해보라'고 말하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성적 수치심과 주민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여성 이기에 앞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쉬쉬하기 보다는 해당 인터넷 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시민단체 옥시 불매운동 선포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슴기 살균제 파동을 일으킨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전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을 옥시제품 불매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옥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밝혀진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전국 1528명이며, 확인된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며 "광주·전남에서도 지난해까지 55명이 피해 접수를 했고, 이 중 7명이 확정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는 연구를 조작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 비사실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와 처벌, 국회 청문회 실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옥시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

## 음식값 4만5000원 때먹었다가...600만원 벌금 폭탄



음식값 4만5000원 때먹었다가...600만원 벌금 폭탄

○음식값 4만5000원을 때먹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음식값의 148배가 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A(51)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5시 33분께 나주시 한 식당에서 2만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도 값을 치르지 않았고, 앞서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0시께 나주의 또 다른 식당(1만

7000원 상당)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다만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4만5000원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